

제	제 목	면면어음		
		1면(주)	2면(부)	3면(부)
1	제 1호의 주제어, 용어, 표제어, 표제어	1면(주)	2면(부)	3면(부)
2	제 2호의 주제어, 용어, 표제어, 표제어	1면(주)	2면(부)	3면(부)
3	제 3호의 주제어, 용어, 표제어, 표제어	1면(주)	2면(부)	3면(부)
4	제 4호의 주제어, 용어, 표제어, 표제어	1면(주)	2면(부)	3면(부)
5	제 5호의 주제어, 용어, 표제어, 표제어	1면(주)	2면(부)	3면(부)
6	제 6호의 주제어, 용어, 표제어, 표제어	1면(주)	2면(부)	3면(부)

확대되고 있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신민서 기자 / 사진: 최갑석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경대 치전원)의 6가지 교육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구급 보건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이다. 이에 학생들이 대외로 인근 지역사회에 진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대 치전원 학생들은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봉사동아리 "초석"을 제외하고는 학기가 끝난 방학 동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기 중에도 진료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늘어나고 있다.

초석은 각 학기마다 생후 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영음종합심사특기증에서 진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 지도교수인 이규복 교수를 주축으로 하여 OB선배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1, 2학년은 진료 보조와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학년은 환자의 상담역할을 담당한다. 4학년은 간단한 진료로 환자들을 도와주며, 주로 OB선배들이 다양한 진료를 하고 있다. 이번 1학기 봉사활동(2011. 6. 18)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의 소감에 따르면 "봉사활동에서 스캐닝이나 리진 필링과 같은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denture의 rebasing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까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을 봤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진료가 시행되는 것을 초석원의 특징으로 꼽았다.

해로는 매일 세 번째 주 요일마다 모퉁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3군데 보육시설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포항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로 출신의 졸업생인 김경익, 서준호, 양성일, 이인희, 최태호 선배가 진료를 맡고 있으며, 치전원 학생들이 보조를 하고 있다. 협수가 협수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는 못하고 주로 4학년과 3학년이 봉사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케이스를 접하는 기회까지 얻고 있다. 휘올이는 매우 중요하며 대구 치과대학 노년학과 치과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구민 교내에 독립된 진료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진료는 오후 12시에 시작하여 6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12시부터 2시까지 3학년과 4학년이 조를 이루어 스캐닝을 시행하며, 2시부터 휘올



1. 대구 치과대학 노년학과 치과 진료소 (사진: 최갑석) 2. 대구 치과대학 노년학과 치과 진료소 (사진: 최갑석)

이 출신 졸업생인 김대성, 김명섭, 김호철, 박준호, 박성훈, 제갈문, 조광우, 최우현, 최성우, 홍재현 선배가 돌아가며 진료를 하고 학생들이 보조를 하게 된다. 이상으로 바쁜 학교생활 중에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세 동아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동아리마다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양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치과 의사로서 본인이 있게 될 사회 체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북대 치전원의 실습환경 개선

신민서 기자 / 사진: 최갑석

◆ 치과임상전단계실습실 개조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3층에 위치한 치과임상전단계실습실이 개조를 거쳐 중대다. 학교 측은 새로운 실습대 49대를 구매하였으며 새로 단장된 실습실은 이전에 구입해 놓은 실습대 16대와 기존에 있던 실습대 중 6대 정도를 추가하여 총 71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약 10년 된 낡은 실습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실습대의 설치에 다가오는 학계 방학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는 가을학기 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번 실습대 교체는 약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래된 실습대로 인해 열악했던 학생들의 실습 환경의 대폭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 실습대는 전통으로 이어져 온 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닛체어(Unit Chair) 임상체질을 가능케하고, 무수상업는 재질은 본체와 상반 보호를 위한 스테인리스 트레이가 장착되어 실습대의 보다 편안하게 장기적인 사용 또한 가능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6대 실습대

◆ 컴퓨터실이 임상실습실로

기존에 있던 치과임상전단계실습실 뒷편 컴퓨터실이 활용되는 2층과 3층 로비로 옮겨 사용되고 있고, 그 공간에 약 10대의 유닛체어(Unit Chair)가 설치될 예정이다. 병원의 원내실습실 체어에서도 신개념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환우용으로 하려고 병원 시간 외 시간에도 추가 과외 및 실습을 가능케 하는 등 우수한 실습환경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사는 역시 학계방학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 학생 독서실의 확충

기존 대학원생 세미나실이었던 801호, 802호를 학생 독서실로 새로 단장하였다. 그간 무척은 학업공간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기숙사 휴게실에서 공부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지만, 독서실의 추가는 학습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말 동안 낱안방이 되지 않는 교실에서 함께 공부했던 문제점이 개별 낱안방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해결함으로써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간은 학생 약 50-60명만을 수용 가능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아직 사용하는 학생의 수가 적은 실정이다. 학생들의 무척은 학업공간을 개선하고자 생긴 공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학생 독서실 모습

제 12회 동기회,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 행사 열려

12회 동기회 임원사진 / 편집 조영훈



12회 동기회 임원사진 ▲

지난 5월 14일, 본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에서 치과대학 제12회 동기회 졸업 20주년을 기념하는 모교 방문 행사가 열렸다. 경북시대 12회 졸업생들은 1991년에 졸업한 동기들로 이번 홈페이지에 행사를 게재하면서 발간기념을 모셨고, 이번 기념은 치의학 역사관 및 치전원 발간기념 그리고 동창회 발간기념으로 사뭇할 예정이다.

변화된 모교의 교실과 생활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한 이번 모교 방문 행사는 송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치전원 강당에서 진행된 1부는 12회 졸업생 장흥수 동아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송근태 치전원장의 환영사와 특강을 통해 화제의 속사가 있었고, 이어서 모교 발전 기념과 동창회 발간

기념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온사일 스개 예전 재학생들의 사정에서부터 최근의 동기 모임 시간까지 담긴 동행상 갑상을 통해 몇 추억을 되찾아 보려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기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후 치전원 1층에 새롭게 단장한 치의학 역사관 기념 제막식이 있었고, 1부 마지막은 치전원 복도에서 온사일의 오찬으로 공을 맺었다. 2부 행사는 말미에 갑상을 옮겨 기념 피라미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본교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의 자학적인 모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치전원 1층에 새롭게 단장된 치의학 역사관 ▲ 모교 방문 기념 전달식(가운데), 송근태 교장 모교 방문 시간(가운데) ▲

다가오는 가을학기 더 좋은 학습 환경으로 거듭날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2회 동기회 임원사진 / 편집 조영훈

◆ 컴퓨터실은 각 층 로비로 이동

학교 건물 3층에 위치한 컴퓨터실이 현행실 및 시설 개선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컴퓨터실은 각각 2층과 3층의 로비로 이동하였다. 기존의 컴퓨터실은 보안상 위해 항상 닫혀있고 사용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실을 연 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러가다 다소 불편을 겪었다. 컴퓨터실 로비를 옮겨 오면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정보 검색, 문서 편집, 출력, 자료 복사, 영상 감상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학년 이현호 학생은 "자신과 가까운 로비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자료를 찾기 힘들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컴퓨터실을 이용하거나 기숙사에 가서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컴퓨터가 교실 바로 앞에 설치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실의 이동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나저나 컴퓨터가 로비로 옮겨오면서 일부 컴퓨터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이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되면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보다 사용자 편의에 적합한 사용자 지원 학생들이 주된 역할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체력단련실 기구 확충

우리 학교 건물 4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이 2011년 여름 방학 동안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기존의 체력단련실은 10명 정도의 공간에 상체 운동 기기 1대, 하체 운동 기기 1대, 러닝머신 1대, 타자지 기기 1대로 매우 부족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지체하였다. 특히 기본적인 운동 기구인 덤벨이나 바벨조차도 없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운동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통해 들어올 기구는 이제 확정되는 않았으나, 보다 다양한 기구를 마련해 학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4층 체육실과 리모델링을 통해 사계절이 될 달걀 및 사용물을 갖추게 된 만큼,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수업 전, 후 및 공강 시간 등을 이용하여 편하게 체력 단련



4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가운데),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

실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학년 김진영 학생은 "주변 피트니스 센터의 사용료가 비싸고 거기도 많이 공강 시간은 물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운동을 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원도 견딜만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겼다. 역시 1학년 이교을 학생은 "수업이 오기부터 자제하지 이루어지는 만큼 따로 운동을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학교 건물 내에 운동 시설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밝은 표정을 보였다. 또한 1학년 송주현 학생은 "기숙사 역시 운동 시설이 많은 편이 아니냐? 이런 저수에는 전혀관심 없이 아니라 의견사항 및 자각적인 연구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운동하기가 편하지 않다. 학교에 어떤 시설이 생긴다면 보다 운동을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체력단련실의 리모델링을 반기며 좋은 공간이었던 앞으로 설치된 구상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많은 기대를 나타냈다. 활동실 측은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많은 시설이 들어서서 체력단련실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4층에 시작해도 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주어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보다 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하였다. 우리 학교 건물은 본교와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체육 시설은 물론 다양한 복지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많은 복지 시설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편의를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 학생들이 새 기구를 잘 관리하여 앞으로 들어올 때는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는 축제, 니사금

- 제 32회 니사금 축제 -

박인우 기자, 수유기가 담당 / 편집 수유기가 노후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제32회 니사금 축제가 열렸다. 첫째 날인 19일에는 동성로에 위치한 2.28기념 종합공원의 진로 부스와 제2캠퍼스 원학생 진로실 두 곳에서 축제가 진행되었다. 진로 부스는 인성 재목, 구강상식 퀘즈, 구강 보건 교육, 불소도포, 예방순삭 등 5개의 부스로 이루어졌다. 인성 재목 부스에서는 방문객 개인의 재목을 인성 재목하여 학교 모형을 나누어 주고, 구강상식 퀘즈 부스에서는 간단한 구강 상식에 대한 퀘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부스에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상식에 대한 교육 및 불소의 예방적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직접 불소도포 도포해 주었으며, 예방 순삭 부스에서는 포스터를 통해 중학교대학과 치과병원과 원학생 진로에 관해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원학생 진로실의 무료 구강검진 행사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북대학교 본교에서 치러진 특산과는 달리, 평일 낮에 사후 한복판에 있는 2.28공원에서 치루어져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사생활의 보호를 이끌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홍보가 늦어 이번 축제 기간에는 참여가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취미의 특성상 전기, 물의 공급이 어려워 가구의 사용이나 세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치과병원 원학생 진로실에서는 무료 구강검진 행사를 안내하고 일반인들에게 검진을 실시하였다. 지난주까지의 진로서비스에서 진행하여 수반한 검진도 가능했던 반면 올해는 원학생 진로실에서 진행하여 수반 대의 한복판에 와서도 가족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니사금 행사에 사후를 방문한 니사금, 무료 구강검진부스 ▲

둘째 날 행사는 과내에서 동아리 대항전, 기요제 등으로 이어졌다. 오전에는 동아리별 대항전이 진행되었다. 36-1의 형식으로 진행된 퀘즈에서는 잘 알았던 학교의 정보와 역사에 대한 주제가 출제되어 학교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었고, 학생 재향의 상상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어 신, 후배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마니 율동제, 어린이 발표를 하여 하는 무리할 거꾸, 트램펄린, 판 놀이기, 그림판 퀘즈, 물으로 말하기, 무에서 못가게 등의 포스트 게임이 이어졌다. 학생회에서 생활을 거꾸로 준비한 것은 큰 의미를 주었음 뿐 아니라 협동심, 예의성 등을 기르고, 상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36-1과 포스트 게임의 결과를 합쳐 동아리의 순위를 선정하였고, 1위는 아폴로니아 2위는 해피랜드, 대항전 3위는 해피랜드가 수상하였다. 오후에는 동아리별로 모여 애송곡 모자이크를 이용한 카드 게임을 제작하였고, 간식 시간을 가진 이후 자서전은 김학미 씨의 문과 앞에서 '나사금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기요제 진행에 앞서 1층에서 열린 사진전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1위는 3학년 이소연, 2위 2학년 김경민, 3위는 2학년 배현우 학우가 영감을 차지했다. 문과 앞에 마련된 화려한 특설무대에서 치루어진 기요제는 본교에서 치러진 특산 기요제보다 참여인원은 적었지만, 좀 더 가족적이고 화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댄스동아리 A2의 공연으로 시작된 기요제는 송과 노래는 물론이고, 뽕, 기타, 풍물 등 다양한 무대로 이루어졌고, 조율된 교수가 직접 무대에 올라 'My way'를 열창하는 등 사제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1위는 '난 내게 반했어'를 무르며 3인 3단 한결같은 컨셉을 보여주며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3학년 한영민 학우가 수상하였다. 2위는 '별은 왜가'를 재연하는 거사과를 열게 재치있는 안효은 큰 웃음을 자아낸 1학년 장예서, 3위는 '라베르 탕고'를 불로와 기타로 이끄는 다은 합주로 참여한 2학년 문은정, 임형미 학우가 영예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인기있는 뜻이 뜻이 될 정도로 특별한 무대 아레나 보여준 1학년 박지민 학우가 수상하였다.

My Way 불로와 기타 연주하는 조은민 학우 ▲



My Way 불로와 기타 연주하는 조은민 학우 ▲

가야기 발표하는 임형미 학우 ▲

만평

그림
상도재주

오전 9시: XX씨형
오전 11시: OO씨형
오후 3시: KK씨형
.....



다음날 아침 8시...모든 것을 하달게 불태웠어...



오후 8시: 조별회의
오후 8시: 페도드작성
서브 노시: PPT 작성
.....



하, 그거 자물쇠
두개 시형가능...

교수님!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봐주세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억의 조각을 만든다.

태국으로 간 3학년 졸업여행

반도체 공학과 / 공도 140호

5/1일 한나성 병원생활의 막 번째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에게 거짓말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태국으로의 졸업여행이 그것이다. 해외여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학우들도 있고, 학교생활과는 다른 병원생활에 참가위하여 졸업여행 전날에서야 부러부러 여행을 떠나는 학우도 있었으나, 다음 마음을 한껏 들떠 있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해왔던 학우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을 들뜨게 하는 큰 이유였으며, 또 현실을 떠나 일정 즐길 수 있는 공휴일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일정은 5/1일부터 5일까지 3박5일이었으며, 학술교류 방문은 솔라롱크 대학(Sukhothrajongkorn University)의 치과대학의 간학도 포함하여 있었다.

1-2일

대구 공립 > 태국 공립 > 솔라롱크 대학 > 피라에 > 일커자 소

5/1일 저녁 비행기를 타기 위해 우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날에도 번들, 번들하게 가벼운 슬리퍼 착용으로 대구공항에 모였다. 다음 들른 마을에 수도 상해경으로 시작된 여행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글라이더였다. 이렇게까지 일하는 긴장된 시간들이 그렇게 나마는 것이다. 근처까지 가서 어느 해안에 도착하고, 태국 공립에 내려가자 무어라하는 말도 무심하게 이쪽저쪽기에 실린 얼마 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도착했음을 실감하여 태국 여행을 시작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는 학술교류 방문은 솔라롱크 대학으로 향했다. 솔라롱크 대학은 1917년 솔라롱크 왕국이 5세이 세후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일한 왕립대학이다. 치과대학에 들어서자마자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랐다. 도시에 위치한 넓은 숲이 무거워 캠퍼스에는 큰 규모의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선 학교 전체에 관한 소개를 듣고 호텔로 나누어 학교 안내를 받았다. 각 호텔로 치과대학 5학년 1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내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어떤 대학과 교류 있는 학생들의 안내에 너무나 귀여운 학생들이 학과가 따로 구분되어... 학교 안내를 받다 보니 다른 것은 물론이고 치과 대학생활을 위한 입고 형태는 자료의 도시만큼 정말 부러웠다. 공부할 위한 열광적인 분위기, 자유, 논리, 전공서적 그리고 소설 등 교양서적까지 정말 잘 구비되어 있었다. 학교 안내가 끝나고 거점 다과 시간에는 솔라롱크 대학의 학생들과 인연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순한 청담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들도 졸업 후 가야 하는 곳이다. 연이어서, 전로 거점 등 우리와 같은 과정을 하는 치과대학이라는 동일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짧은 견학시간을 마치고 나오면서 재수하러도 함께하면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라롱크 대학 견학을 마치고 피라에로 이동했다. 휴양지 형태의 도시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게 되어 있는지 고민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사진을 받으며 꼭 해겠다는 휴식과, 그 도시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변화가를 찾아다니는 행위와, 이사진을 찾아 피라에에서의 살 수 있는 것을 구입해 갔다는 소풍과, 태국에 왔으니 이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식도 여행,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울지 고민하는 친구들까지 정말 다양한 생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며 09학번은 정말 다양한 재미로 있어 있는 듯하게 들리는 생각이 들었다.

피라에 도착 후, 세계 3대 소 중의 하나인 '일커자 소'를 보았다. 무서운 여자인 남자들이 이따서 말치기 꾸미는 쇼로, K-pop에 맞춰서 춤을 추는 남자가 가장 예뻐서 모두 환호했던 기억이 난다. 소를 마치고 나서서 피라에로 오는 내내 고민한 결과에 따라 각자 자유 시간을 보냈다. 나는 식도학과 중 하나였는데, 그날 저녁 먹은 태국음식은 정말 훌륭했다. 공부한 해산물요리도 시원한 해주는 여행지에서 외 하루를 완벽하게 해주었다.

3일

피라에 산호섬

5/3일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배를 타기 위해 산호섬으로 향했다. 산호섬에 들어가기 위해 배였다. 배로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 산호섬이 나온다. 배에 닿은 곳은 모래에서 얇게 촉촉한 지의 반박함이 느껴졌다. 바나나보트부터 피라에섬까지 정말 많은 배정소초를 즐길 수 있었으며,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도 안전하게 되어 있는 곳이었다. 바닷가에서 60명이 단위로 노는 것은 정말 해보지 않았던 일도 많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누가 나를 부르는데도 모르고는 제 내가 누구를 부르는데도 모르고는 제 서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단순한 놀이만을 하더라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이 났다. 그렇게 피라에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졸업여행에 함께 해주신 김교수님 김교수님 김교수님 교수님을 모시고 재수하러 왔다. 나는의 장시간, 아직도 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 번들을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며 재수도 맞고 싶을 것 같다.



2009 10월 11일



2009 10월 11일

4-5일

학우들 > 소풍 > 태국 > 피라에 > 태국 공립 > 대구 공립

졸업여행의 마지막 날, 피라에여행의 한계로 인해 여기저기 소풍상태에 들어갔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이 많은 인원이 각각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나서면 연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싶은 생각이 군소리하는 계속 하면서도 열심히 따라다녔다. 배에 올라가는 것도 종류별로 먹고, 보며 반죽도 손에 한번 거르고, 공짜 커피도 안아껴야 하며 열심히 따라다닌 결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 두 손에는 요런 일지만 작은 소풍백들이 들려있었다. 태국에서든 살 수 있는 것들이라 굳게 잡고 지금도 그때 산 물건들을 참더 언제 냐트도 감하게 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했지만 일처가 보던 3박 5일의 졸업여행이 끝나고 벌써 3학년은 한나성생활의 마지막 과를 돌고 있다. 이번 한나성 생활 중 정말았던 졸업여행에서 우리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서로의 다른 얼굴을 보았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이제 한나성생활이 끝나면 1, 2학년 재학생 같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도 줄어들고, 호텔로 모아서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들이 훗날 우리를 함께 웃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즐거웠던 기억들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서로가 정말 더 많이 되는 한나대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한나대에서 온듯 특별한 느낌 때가 있을 것이다.

졸업여행 1차기 사진 촬영



2009 10월 11일 10월 11일

2009 10월 11일



2009 10월 11일

2009 10월 11일 10월 11일



2009 10월 11일 10월 11일

2009 10월 11일



2009 10월 11일

주한 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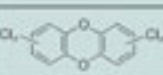
지난 5월 19일, 영국군 해군을 위한 미군기지 캠프 케일 내에 수천 톤 분량의 고엽제 매립 의혹이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주한미군 3명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 주한 미군기지의 폐기물 처리를 보도하였던 한 언론의 증언이 없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증언자들은 따르면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1978년, 자살을 받고 직접 캠프 케일 기지 내 한 블록 규모의 땅을 파고 약 250톤 분량의 agent orange(고엽제)를 매립하였다고 한다. 한편 증언자들 중 한 사람은 직접 드림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확물질에 노출되어 이후 운동에 의한 불편이 생기는 등의 후유증을 서슴없이 호소하기도 하고 강력한 독성을 우려하여 직접 중 오염된 토질검까지 땅속에 동태로 매립하였다.

혹시라도 대한 전한적 보편 시추조사기 아닌 지하추진레이더(EDR)와 전기저항탐색기(EPT) 방식으로 조사 후 이상 지점에 한에서만 추가조사하기로 하였다. 직접적인 토양 시추조사는 고엽제로 인한 다이옥신 이외에도 중금속, 기타 화확물질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굴착 중 오염 및 근사적지탄 가능성으로 미군 측에서 거부하고 단지 협의인 심"해리다 조사 및 비추조사와 관련하여 이상 징후 지켜서서 토양 시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했다. 수질조사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측정에서 굴착 또는 다이옥신 검출 여부를 공개하기로 합의되었다. 미군은 그동안 해당 자취수 관측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특이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다. 한편 다이옥신 측지론 화확물질을 검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 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추가적인 오염이 발견될 경우 미군 측이 담당할 책임소재가 짊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가운데 6월 14일 기지 내 레이다 조사결과 및 정황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어 추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근 자취수와 하천의 수질 분석 결과 하천에서는 기존에 미군, 자취수에 선 국어미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천천기에 따르면 하천에서의 검출은 쓰레기 소각 등의 결과로도 충분히 검출될 수 있는 양이지만, 국어미라도 자취수에서 검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양으로 앞으로 충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 연구실 내 수질실험 모습

고엽제 그 독성에 대해서



▲ Dioxin은 PCDD의 분자구조

고엽제인 테트라클로로 다이옥신은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독성을 띠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 독성을 나타내며 주요 성분은 2,4,4-trichlorophenoxyacetic acid와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를 혼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합성할 때 부산물로 다이옥신이 소량의 불순물로 생성되는데 이 다이옥신이 현재 내로 들어와 유해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다이옥신이란 산소 원자 2개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를 부르는 용어이다. 그 중 유해성을 나타내는 것은 폴리클로로다이옥신-피라-다이옥신(PCDD) 계열이다. 화학구조는 매우 안정하여 산에서 무해하여 구성이 없어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대부분의 다이옥신은 쇠고기, 돼지고기나 닭고기, 우유 등에 들어 있는 지방을 섭취할 때 체내로 흡수되며, 약 3% 이하만 알레나 쓰레기 소각 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흡수된 다이옥신은 배설되지 않고 지방조직에 축적되며, 세포막 내 방출독 수송체를 통해 DNA와 결합한다. 결국 유전자정보를 교란시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속성 변화나 노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독성연구 결과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생리 이상, 알 유물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내에서도 테트라클로로 다이옥신과 실험 결과 2세에 이르기까지 독성이 확인되었다.

환경오염은 캠프 케일 만의 문제인가?

한편 캠프 케일 만 아니라 현재 주한미군에 반환하거나 반환 예정인 미 주둔 기지에서 환경오염의혹이 제기된 사례만 해도 무수하다. 부산, 인천, 무안 등 10여개에 이른다. 이중 이미 반환된 무안과 캠프 케일에서는 자취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으며, 부산의 캠프 케일과 대마에서는 가지갈기 조성 시 대량의 석유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다. 이렇듯 문제가 될 무거 다이옥신을 비롯한 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우려없이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다. 캠프 케일에서의 의혹이 제기되기 전,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조사 해달라는 경기도청의 요청에 국방부는 다이옥신이 정작 조사장소에 다이옥신이 빠져있는 과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후에 정수가 나라인 경우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캠프 케일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부산의 캠프 케일이나 동부전, 인천 등 한 주둔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수질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 전역이 국가 안전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국민의 건강 또한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임에도, 이를 통한 시민들의 국가의 존엄에 대한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비군사적인 측면에서 전 우리 측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한미평화의 발전성 측면에도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 대구에도 캠프 케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의혹의 중심 캠프 케일 또한 대구에서 30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구 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에서도 불과 2km 남짓한 거리이다. 또한 앞으로 주한미군의 잔여물 폐기에 따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근사적 정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포함한 환경적 인성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대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조사과정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지 3달 후인 5월 22일, 정부는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축하여 기지 주변 수질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한-미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이하 한-미 공동조사단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사방법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조사방식은 미군 측 주장에 대부분 반영되어, 증언자들의 지적한 절차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미 추가로 매립의혹이 제기된 몇 장교소에도 소정된 근처 동문 조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지



▲ Dioxin의 인체 노출 경로



▲ 주요 군사기지 위치와 오염 지역

캠프 케일 '고엽제 조사 의혹' 미군 부대 (2013.11.19) & 캠프 케일 인근 자취수 수질 실험, 다이옥신 검출 확인 (2013.11.19)

아름다운 그의 피부

- 남성화장품



문지용 기자에 수필가가 이영민 / 편집 조도봉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로션 하나 비싼 걸 팔아...” 이 광고를 기억하는가? 이 광고가 나왔던 몇 년 전만 해도 남성화장품은 로션이나 자외선 차단제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모와 피부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 가고 현재는 피노키 피용에 이렇듯이 투자하는 남자를 볼 수 있는 일인 ‘그루밍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남성화장품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06년에는 남성화장품 시장이 4,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6,5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조인진 13조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예견하여 가장 먼저 국내에 남성용 제품을 선보인 곳이 에스티에스피(에스피)의 자회사이다. 10여 년 전 에스티에스가 내놓은 캄시프르의 경우 국내 남성들 특히 여성 화장품 못지않은 세련된 남성용 라인업을 갖추었으나 당시 남성용 기능성 제품에 대한 무관심으로 1년에 한 번에 바뀌어만 사라지는 부대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남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캄시프르의 바디라인이 재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다른 유행 국내의 화장품 기업들도 남성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동참하면서 시장의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남성화장품의 출시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일반 남성들의 노화방지나 여백 전문 화장품 같은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의 속속출로 화장품에 처음 입문하는 남성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의 선택에 여간 애매한 것이 아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 캄시프르가 다양한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화장품회사를 선택하자.

피부타입별로 제품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선택하기 다양한 남성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남성용 기능성 제품을 출시한 브랜드로는 ‘꽃물론남성’, ‘다들용르’, ‘빙글’, ‘로제일’, ‘캄시프르’, ‘이오지피사제’, ‘보닌’, ‘비오탈용르’, ‘시슬러’, ‘클라니스’, ‘클라니스’, ‘카를’ 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써보고 싶은 몇몇 브랜드의 매장에서 샘플을 받아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극에 민감한 피부의 경우 속속출 다양한 다스 알려지지만 자신주의를 지향하여 순한 제품이 많은 ‘비디스’, ‘비디’, ‘특사’, ‘아비디’, ‘오르시스’의 제품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피부타입을 체크하자.

어름에는 스킨, 겨울에는 스킨에 로션이면 끝이난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성화장품도 피부타입별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자신의 피부타입을 잘 모를 경우 일부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피부측정장비로써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브랜드에서는 미니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부측정 및 상담을 하고 있다.

◆ 간단한 피부타입 테스트

-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피부타입

- 오뚜기 되면 얼굴에 항상 번들거린다. (B)
- 오공이 넓고 거뭇거뭇한 피지가 많다. (B)
-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당긴다. (A)
- 애드립과 보습제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C)
- 콘집과 겨울에는 각질이 허물기 쉽다. (A)
- 피부가 무서워하고 거친 편이다. (A)
- 모가나 땀그늘 때 피부에 잔주름이 잘 생긴다. (A)
- 날씨가 쌀쌀한 온도에 따라 얼굴이 자주 빨개진다. (C)

A Type 건성 피부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저자극성 화장품을 사용. 피노키션이 없는 노기는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B Type 지성 피부 아토피성으로 노폐물과 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 세안 후 피지 컨트롤 효과가 있는 스킨과 로션은 사용하여 오공을 수축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때 스킨을 냉동보관해 사용하면 오공 수축 효과가 증진된다.

C Type 민감성 피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킨과 로션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저 자극성 제품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해주는 민감성 전문 피부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선택하자.

- 콜라겐/스킨 로션/에스스피/자외선차단제 -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이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세안이며 이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클렌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킨, 로션은 남성의 경우 연도를 하면서 피부 자극을 많이 받게 때문에 진정작용 및 수분보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성 제품의 경우는 농축된 에스스피 제품도 함께 써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 더군다나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리는 것도 피부 관리에 중요하다.



◆ 피부타입이 중요함

피부 관리 목적에 맞는 기능성제품을 선택하자.

- 화이트닝/오공관리/피지조절/비노피노키노화방지

특별히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맞는 기능성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화방지 라인은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기 전인 20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화이트닝과 노화방지 성분의 조합처럼 함께 사용하면 서로 기능을 저하시키는 성분들도 있으므로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다. 가장 자신을 원하는 한 가지 정도 의 기능성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 적당하다.



피부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요즘, 피부 관리는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젊은 남성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해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반쯤이 광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5~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성공에 광범한 외모와 외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 주었다.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하는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관리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의 외모는 꽤 큰 거울을 수축 할 수 있다. 나이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가 되는 것이 바로 피부이다. 이런 현대인들은 평균적인 생활로 인해 피부가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여 한 번 고생 중인 피부를 위해, 또한 내 자신의 경쟁력을 위해 틈틈이 피부 관리에 힘써 보는 것은 어떨까?



헤어싱 모델, 패션 디자이너, 가수, 아나운서, 자동차 회사와 화장품 회사의 신입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장담하건 바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케이블 방송사인 Mnet에서 제작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수퍼스타K'의 흥행 이후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은 미단 무라카미 현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American Idol"과 "British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를 보여준 적이 있다. 특히 영드론 관여했었던 폴 보르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음악 곡을 찾지 못해 오디션에서 우승하며 참가자의 꿈을 이루는 장면이 인연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서 엄청난 시청률에 거금을 주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을 몰고 온 수퍼스타 시즌2에서는 미국 교보 출신의 유복하고 잘생긴 콘라트 여든가 거침없는 열연의 모습을 가진 뽀빠지 수리굴 허가의 경쟁이 그려졌는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허가의 우승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경쟁력과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재판을 통해 사비로써 형식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지만 여러 경쟁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각 오디션 프로그램 별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MBC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인 "후라이브 현장"에서는 5인의 심사위원을 이 후보로 참여하여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성장시키는 스포츠를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경쟁구도만이 아닌 후원자들의 능력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화려했던 감을 더해 놓고 있다. 특히 최근 프로그램들 통해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전 국민이 무용의 라디오 강대 원서가 선택한 3인의 참가자는 모두 개인적인 매력에 있어지는 이유였지만 강대원의 후보들을 통해 뛰어난 무용까지 전수함으로써 강대원의 라디오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은 이후에야만 아니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존 가수들이 나와서 활동의 선택을 받고 골목은 활약하게 되는 MBC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과 상악에 도전하여 사비로써 형식의 경쟁을 하는 Mnet의 "오래 리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 예이다. "나는 가수다"의 경우 첫 경쟁에서 탈락한 가수 김건모가 처음 펼친 곡과 다르게 재도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비난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PD가 고쳐지는 등 무의미한 것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고 가수들이 열광에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오래 리 스타"의 경우 형식 가수들이 상악이라는 장르에 도전하여 경쟁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 참가자 3인이 심사위원 겸 후보로 활약하였다. 6주간 매주 생방송으로 진행된 경쟁에서 가수들은 각 주 다른 미션으로 오세라 및 상악곡들을 열거게 소화함으로써 대중적이지 않았던 클래식한 장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수 재이와 K김정욱이 화음 경쟁까지 살아남아 열연 장면 보여주었는데 속사포에 속사포는 조수미에게 감격 통박 하여 무대를 빛나게 해주었다.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에 힘입어 각 방송사에서는 가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MBC에서는 자신의 실력 아나운서를 공개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SBS는 주연급 드라마 연기자 선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케이블 방송인 디즈니TV에서는 연예 분야

가 아닌 국내 유수의 대기업 신입사원을 공개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패션디자이너, 헤어싱 모델 등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 성공에 대해 사람들에게 기대는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쟁의 인연의 주인공 공을이 공개된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와 대중들의 눈치부름을 통해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성장하며, 꿈의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택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핵심적 메시지에 대중들이 공감을 하여 대안극을 넘겨 넘겨는 것 흥행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의 무게에 꿈을 잊고선 당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프로그램	방송사	특징
수퍼스타K	Mnet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나는 가수다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오래 리 스타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5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6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7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8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9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0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1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2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3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4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5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6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7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8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19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0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1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2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3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4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5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6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7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8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29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0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1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2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3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4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5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6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7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8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39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0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1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2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3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4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5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6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7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8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49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수퍼스타K50	MBC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격으로 시즌별 4000~5000명 정도의 참가자

